

충청남도

## 중소·벤처 디자인 개발 지원 착수

제품 및 포장디자인 지원 가능

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로촉진을 위해 2009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년도에 모두 5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지원분야는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기업체 홍보 카달로그, ▲ CI ▲ BI 등이며, 지원내용은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등의 개발이다.

지원방법은 도와 우수한 장비를 보유한 한서대학교 제품표면디자인센터가 상호 업무위탁을 통해 2월 16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후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충남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의 공고·고시나 한서대 제품표면디자인센터 안내(<http://w-ww.psdic.co.kr>)에서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성과와 기업의 수요 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개장

HACCP 설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광주에 최신 농산물 유통시설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문을 연다.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1백50억원을 투입해(국비 17억, 지방비 13억, 자부담 1백20억) 부지 9천9백95㎡에 연면적 8천8백7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착공한 광산구 수완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오는 3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 최초로 건립된 광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집하장, 세척실, 선별포장실, 예냉실 HACCP시설 등을 갖춘 초대형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로, WTO와 한미 FTA체결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에 알맞게 공동선별에서 세척, 포장, 출하까지 일괄시스템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해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HACCP 시설에서 유해물질차단 이온수 세척, 살균소독 등 농산물을 위생처리해 지역 각급학교 등 단체급식장과 대형유통업체, 일반소비자 등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토종 명품 화장품 키워**  
 화장품에 40억 투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달 13일 화장품산업 연구·개발(R&D) 분야에 40억 원을 투자해 현재 세계 12위인 화장품산업 국가 순위를 2018년 세계 7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화장품 R&D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구, 신소재 개발, 제형(사용 목적에 맞춰 만들어진 형태) 개발, 포장·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매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부 노화억제, 잔주름 방지, 미백 등에 효과있는 물질 발굴, 캡슐공법, 인공피부·모발세포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신제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기업들의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금지했던 화장품 사용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을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신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입증에 실패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질병의 진단·예방·치료 등에 직접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면 표시·광고에 피부 개선 등과 관련한 '효능'을 강조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외품 중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

제, 피부연화제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기로 했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제조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해도 이들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인증마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세우고 인증 표준모델 개발과 시설 개선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발표**  
 Green 유통 원년 도약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1월 29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지경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유통업계·학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이날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우리 유통산업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대형마트의 제1위 소매업체로의 浮上",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판매업의 급성장", "기업형 유통과 생계형 유통의 갈등"을 꼽고, 향후 5년 내에는 "Green", "新유통채널", "Global" 세 단어가 유

통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Post-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低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비록 온실가스를 직접·대량 배출하는 굴뚝산업은 아니지만, 서비스업 중에서는 전국의 매장, 물류센터, 상품 수·배송 등을 통해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산업의 준비와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소비수요 다양화에 따라 카테고리 킬러,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여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 주 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쇼핑몰'은 향후 5년 이내 대형마트를 잇는 가장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로 앞으로 향후 5년은 그간 내수산업으로 성장해 온 유통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시기도 될 것으로 기대, 유통산업은 과거 美 월마트, 佛 까르푸의 철수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 중 드물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 업계도 해외 진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임을 판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유통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 단계적인 'Green 유통' 확산 전략 추진 ▲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 ▲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글로벌 유통기업 육성 ▲ 유통구조의 효율화 ▲ 유통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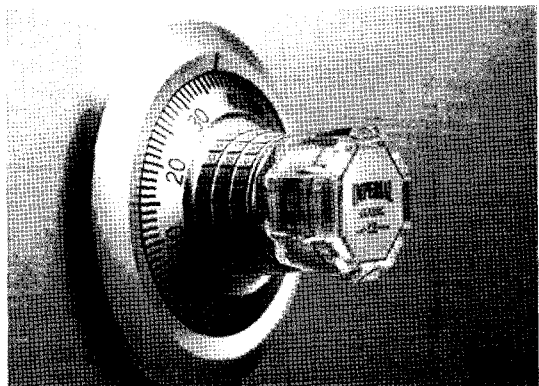
양성 체계화 및 유통산업통계 정비 ▲ 유통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구조 해소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지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 '05년 12월 개정 이후 4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특허청 병뚜껑 1백54건의 특허 밝혀 기능성 병뚜껑 개발 활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무게 2~3g짜리 병뚜껑에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 특허기술들이 숨어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병뚜껑에 관한 특허출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6백49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달 24일 밝혔다. 이 중 특허로 인정받은 경우



▲ 임페리얼 트리플 기퍼

는 1백54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뚜껑 고유기능 이외에 위조방지, 첨가물 수용 및 안전개봉과 같은 부가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성 병뚜껑'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1989년부터 5년 단위로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 비율을 보면 초기 5년간 25.0%였던 출원비율이 최근 5년 동안 70.8%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기능성 뚜껑은 보조첨가물을 병 안으로 넣어주는 이중 병뚜껑으로 모두 2백8건이 출원돼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의 51.1%를 차지했다.

예컨대 뚜껑 내부에 액체약이나 주스분말 등을 넣어둔 뒤 뚜껑을 돌리면 뚜껑 안쪽에 설치된 내부뚜껑이 열리거나 풀리면서 액체약물이나 분말가루 등이 병 속 내용물과 섞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병뚜껑을 어린이나 유아들이 쉽게 개봉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 병뚜껑도 그동안 36건 특허출원됐다. 뚜껑을 돌려 특정한 표시선에 위치를 맞추거나 힘을 쥐 눌러야만 열 수 있는 뚜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예로 플라스틱 제조 전문업체인 다본(대표 김승섭)은 지난해 '위조방지용안전캡'을 개발, 위스키업체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옛 진로발렌타인스)에 '임페리얼 트리플 키퍼'란 이름으로 납품 중이다.

뚜껑을 여는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뚜껑이 아래위로 흔들리는 진동을 느끼게 되며, 내부에 인쇄된 알파벳 로고(IMPERIAL)가 한자(正品)로 바뀌도록 고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실태 조사**  
위약시설 집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월 23일(2개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캔디류, 과자류, 초콜릿가공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해당 제품 제조, 수입, 소분, 판매업소(6백57개)에 대한 일체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허위표시, 시설 무단폐실, 자가품질검사 위반 등 1백60개소(1백94개 위반사항)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표시위반(미표시, 유통기한 허위표시) 47건, 비위생적 취급 38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품목보고 미실시 54건, 시설, 기준규격, 준수사항 등 기타 55건이다.

금번 조사 결과 7개 유형(7백86개)의 어린이 기호식품이 주로 유통되고 절반 이상(54%)이 1백원 이하의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7개 유형은 캔디류(44%), 과자류(26.8%), 추잉검(6.6%), 초콜릿가공품(6.1%), 혼합음료(3.9%), 조미건어포(2%), 엿류(1.8%), 기타(당류가공품 등 8.7%) 등이다.

국내 제품이 전체의 80.2%(630개), 수입 제품이 19.8%(1백56개)를 차지하고, 수입제품의 50.6%(79개)는 1백~2백원대 중국, 인도네시아산 캔디, 과자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5백75건의 제품 수거 검사 결과 13개 부

적합(산가 4, 식용적색2호색소 4, 삭카린나트륨 1, 대장균 1, 곰팡이 2, 내용량 미달 1) 제품 7천6백7kg을 압류 또는 폐기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어린이 기호 식품 유통 현황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식품판매점 현황(1만4천9백10개소)을 지방청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고 위해식품 판매금지 및 신속 회수, SMS문자 제공,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우수판매업소 관리 운영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09년 상반기에 위반 업소와 부적합 품목에 대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향후 어린이 다소비 품목, 표시, 포장 등이 열악, 조잡한 제품,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불량제품 제조자 언론공개 등 강화**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 강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는 대신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상습 제조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로 바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백47개 전기용품을 1백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95종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해 제품시험 합격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서 각각 60억원과 6억원의 인증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 2012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해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또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용 의류·완구·문구 등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18개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 아동용 2단침대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캐리어 ▲ 일회용 기저귀 ▲ 불휴지를 추가 지정기로 했다.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